

재해사례

(벌도목)

걸려 있는 나무 절단작업 중 벌도목에 맞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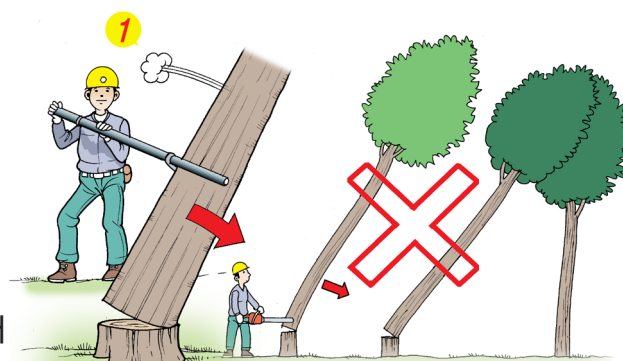
조심조심
코리아
임업

벌목 현장에서 옆 나무에 걸려 있던 나무를 조재(벌목한 벌도목을 운반하기 쉽게 일정 길이로 절단)하던 작업자가 작업 중 절단된 벌도목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며 나무에 맞음



! 재해발생 원인

- 걸려 있는 벌도목을 지면으로 쓰러뜨리지 않은 채 절단작업 실시
 - 낮은 자세가 아닌 지면으로부터 1.5~2m 높이의 불안정한 자세로 기계톱 절단작업 실시
- 벌도목의 수구(방향베기)와 추구(따라베기)를 하지 않은 상태



나무를 작업자 반대방향으로 굴림 (목재 돌림대) 걸려 있는 나무 위로 다른 나무 쓰러뜨리기 금지

+ 안전작업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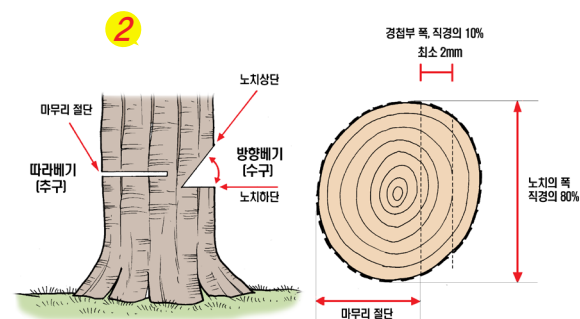
TIP

1 걸려 있는 벌도목의 안전한 처리

- 걸려 있는 벌도목은 절단작업 금지
- 목재 돌림대·소형원치·지렛대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쓰러뜨린 후 작업

2 완전히 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벌도작업 실시

- 인접 수목·지형·풍향·풍속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 선택
- 충분한 수구(방향베기) 및 노치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





걸려 있는 나무 절단작업 중 벌도목에 맞음 벌도목이 걸린 상황에서 조재작업 금지!

다른 나무에 걸린 벌도목을 기계톱을 사용해 일정 크기로 절단하던 중 이 나무에 깔려 1명이 사망한 재해입니다.



벌도목이 인접 나무에 걸렸을 때는 목재 돌림대, 소형원치, 지렛대를 사용해 안전하게 쓰러뜨린 후 작업해야 합니다. 또 조재작업시 목재의 미끄러짐과 구를 위험 등을 고려해 작업위치 자세, 안전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(벌목작업시 등의 위험 방지), 제406조(벌목의 신호 등)
- KOSHA Guide G-63-2011(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
